

1월 10일(월) / 시 85-87

▶ 내용요약 : 고라 자손은 여호와께서 그의 분노를 돌이키고 은혜를 베풀어 그의 백성의 죄를 사하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인자와 구원을 간구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과 영광을 베푸신다고 선포한다며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을 근거로 구원을 소망한다(시 85). 다윗은 가난과 궁핍을 근거로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과 은혜를 간구한다. 그는 하나님 응답을 확신하며 부르짖고 여호와께서 자신을 가르치시고 자신은 진리를 행하고 영광을 들릴 것을 약속하고 은혜와 구원을 간구한다(시 18).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성 시온의 영광과 그곳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인 시온을 세우신다고 찬양한다(시 87)

▶ 질문 : 고라 자손은 진리가 어디에서 솟아난다고 했는가?
▶ 생각하기 :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자이다.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당신의 내면세계는 어떠한가? 그 세계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가? 만약 없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1월 13일(목) / 시 100-102

▶ 내용요약 : 시인은 온 땅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섬기며 그에게 나아가라고 선포하며 여호와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과 양이라는 것을 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의 이름을 송축할 것을 요청하고 여호와의 인자와 선하심이 영원함을 선포한다(100편). 다윗은 여호와의 인자와 정의를 찬양하며 여호와의 완전한 길을 주목하여 완전한 마음으로 행할 것을 고백한다. 그는 자신의 비천함과 사악함을 떠나게 하고 이 땅의 충성된 자들과 함께 살고 악인들이 서지 못하게 하겠다고 선포한다(101편). 시인은 자신의 날은 연기에 비유하며 하나님을 뵈기를 간절히 요청한다. 그의 간절함은 음식의 거절, 탄식, 밤을 지새움과 재라는 용어를 각종 새와 비유를 통해 전달하고 하나님이 보살핌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원함과 무궁함을 고백한다(102편).

▶ 질문 : 시인은 옛적에 여호와께서 땅의 무엇을 놓으셨다고 했는가?
▶ 생각하기 : 당신은 누구가를 보고 싶어 밤을 지새운 적이 있는가? 시인은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뵈고 싶어 밤을 지새우고 음식을 잇을 정도로 간절히 바라고 있다. 당신은 하나님 뵈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1월 16일(주일) / 시 112-114

▶ 내용요약 :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후손은 강성하고 부와 재물이 있고 공의가 있고 정직한 자는 자비와 공훈과 의로움이 있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은혜를 베푸는 자는 정의를 행하고 영원히 기억된다고 말한다. 시인은 정직한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재물들을 빈궁한 자들에게 주어 그의 의가 영광중에 들릴 것이며 그러나 악인은 소멸될 것이라고 말한다(시 112편). 시인은 여호와의 종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선포하며 영원히 모든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받으실 것을 선포하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가 모든 것 보다 높으며 여호와 같

1월 11일(화) / 시 94-96

▶ 내용요약 : 시인은 복수(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을 찾으며 교만한 악인, 오만과 자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를 죽이는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의 행태를 고발한다. 그는 귀와 눈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허무함을 알고 계시므로 오히려 여호와와 징벌과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한다. 그는 여호와의 도움이 자신에게 위안을 주셨고 하나님은 반석과 요새라고 선포한다(94편). 시인은 하나님은 왕이시며 창조자이시기에 찬양하자고 제시한다. 그러면서 시인은 그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선포한다(95편).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과 구원과 행적을 선포하라고 요청하며 만국들이 우상이 아닌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과 예배를 할 것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통치와 공평하신 심판에 근거하여 우주 만물의 기쁨을 소개한다(96편)

▶ 질문 : 시인이 트리바와 맞사와 같이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했는가?
▶ 생각하기 : 당신은 오만하고 자만한 사람을 볼 때 어떤 기분이 들며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 당신은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하는가?

1월 14일(금) / 시 103-106

▶ 내용요약 : 다윗은 하나님의 은택, 죄사함, 병고침, 속락하심, 인자와 긍휼, 만족케 함을 잊지 말라고 요청하며 여호와는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경외하는 자들의 죄 용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을 상기시키며 그는 언약을 지키는 자이기에 그를 송축하라고 선포한다(103).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귀와 권위를 자연만물에 행하신 그의 일을 주목하면서 그를 영원히 찬송할 것을 선포한다(104편). 시인은 여호와의 능력과 얼굴을 구할 것을 요청하며 그의 택하신 백성에게 행한 기적, 과언약, 출애굽과 열가지 재앙,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신 일을 상기시키며 백성의 본분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다고 선포한다(105편). 시인은 정의와 공의를 상기시키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한 일, 가나안 땅에서 타락과 포로됨, 포로됨에서 긍휼을 얻는 전 역사를 통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한다.

▶ 질문 : 이스라엘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을 바꾸었는가?
▶ 생각하기 : 지금까지 당신이 걸어온 발걸음을 돌아보라 그 발자국에 어떤 삶의 흔적이 묻어 있는가? 그 흔적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리고 그의 구원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은 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여호와는 스스로 낮추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고 임신 못하던 자를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한다(시 113편). 시인은 출애굽을 회상하며 유다는 성소 이스라엘은 영토가 되었고 여호와와 놀라운 행사로 인해 바다와 산들이 반응하는 이미지를 통해 그의 놀라운 위엄을 찬양하고 모든 땅에게 하나님을 두려워 할 것을 선포한다(시 114편)

1월 12일(수) / 시 97-99

▶ 내용요약 : 시인은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고 대적을 불사르는 행적을 선포하며 자연세계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땅과 산이 두려워 함을 선포하며 우상을 섬기는 자의 수치와 지존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악을 미워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요청한다(97편). 시인은 여호와와 놀라운 일과 구원을 근거로 온 땅에게 기뻐하며 모든 악기와 목소리로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를 요청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의와 공의로 세계와 백성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한다(98편). 시인은 그들 사이에 좌절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위대함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기에 그에게 경배하라고 선포한다. 그는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을 언급하여 그들의 간구와 그들이 하나님의 증거와 율례 지킴과 하나님의 응답을 강조한다(99편)

▶ 질문 : 하나님은 무엇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는가?
▶ 생각하기 : 용서, 당신은 이 단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에서 우리는 용서 받은 자인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월 15일(토) / 시 109-111

▶ 내용요약 :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악한 자들의 언어폭력, 선을 악으로 갚는 그의 횡포속에 기도한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를 여호와 앞에 쏟으며 악인들이 그 누군가에도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해 달라고 간청하며 여호와께 두움과 구원을 간청하며 찬송할 것을 선포한다(109편).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주께 통치권을 주심을 선포하고 그에게 헌신하여 나오는 청년들의 모습을 소개하며 또한 그가 영원한 제사장임과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이심을 선포한다(110편). 시인은 자신이 정직한 자들 가운데 있음과 여호와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과 언약을 기억하심과 선포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지킬 것을 선포한다(111편)

▶ 질문 : 지혜의 근본은 무엇인가?
▶ 생각하기 : 언어폭력은 사람의 마음을 파괴하는 무서운 죄악이다. 어쩌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아니면 고의적으로 또는 자신을 못이끼거나 상대를 억압하기 위해 언어폭력을 행한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 당신은 어떠한가?

▶ 질문 : 시인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는가?
▶ 생각하기 : 과거, 그것은 그냥 지나가 버린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 출애굽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의 과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근간이었다.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즉 과거의 사건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